

세계 경제 동향

● 트럼프, 유엔총회서 이란에 최후통첩 ■ '26-9-22 Reuters

-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(현지시간) 제8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이란에 대해 “협상 아니면 섬멸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최후통첩성 압박
- 미국 협상팀(위트코프·쿠슈너 특사)이 이란 측 중재자와 3시간에 걸친 비공식 회담을 했다고 공개,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해상봉쇄 완화·대이란 제재 해제 등 종전 조건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짐
- ❖ 종전 협상이 미국 중간선거(11월) 이후로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, 중동 정세 불확실성 장기화에 대비한 농자재 조달선 다변화 점검 필요

● 국제유가, 이란 협상 기대에 보름 만에 100달러 붕괴 ■ '26-9-22 CNBC

- 트럼프-이란 대표단 회담 소식에 22일(현지시간) 국제유가가 5거래일 연속 하락, 브렌트유는 전일대비 1% 하락한 배럴당 99.25달러·WTI는 1.2% 하락한 94.59달러로 마감(이번 주 4%대 하락, 이달 들어 9%대 상승)
- 이는 9.8 이후 약 보름 만에 배럴당 100달러선이 무너진 것, 사우디의 동서송유관 가동 재개 소식도 하락에 일조
- 라스타누라항은 2.28 전쟁 발발 이후 9.21 최대 선적일을 기록, 초대형유조선 6척이 약 1,200만 배럴을 선적
- ❖ 협상 성사 여부에 따라 유가 변동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, 비료·사료 등 수입 농자재 도입단가에 미치는 영향 지속 점검 필요

국내 경제 동향

● 미 금리인상 이후 원/달러 환율 재반등 조짐 ■ '26-9-22 한국은행

- 한국은행은 22일 「금융안정 상황(2026년 9월)」을 통해 원/달러 환율이 7월 이후 외환시장 수급 개선으로 큰 폭 하락했으나, 9월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이후 다시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
- 원/달러 환율은 상반기 중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1,555.8원까지 상승했다가, 7월 이후 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에 힘입어 1,300원대 중후반까지 하락
- 향후 중동 상황과 국제유가 동향, 주요국 기준금리 향방 등에 따라 환율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
- ❖ 환율이 재상승 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그간 원화 강세로 완화되어 온 수입 농자재 비용 부담이 다시 커질 우려, 선제적 대응 필요

● 9월 소비자심리지수 106.6, 한 달 만에 2.1p 반등 ■ '26-9-23 한국은행

-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「2026년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」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(CCSI)는 106.6으로 전월(104.5) 대비 2.1포인트 상승, 8월 하락분의 대부분을 회복
- 가계수입전망(102, +2p)이 상승을 주도,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소득 개선 기대가 반영.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.7%로 전월과 동일
- 금리수준전망지수는 128로 전월 대비 3p 상승해 2023년 10월 이후 최고치, 연준·한은의 연이은 금리인상 기조가 반영
- ❖ 소비심리 회복이 외식·가공식품 소비 여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, 농식품 소비지출 연계 점검 필요

세계 농업·농정 동향

● FAO, 축산업이 세계 단백질 공급 3분의 1 담당...생산방식별 지속가능성 진단 | '26-9-22 FAO

- FAO는 22일 신규 보고서를 통해 혼합 곡물-축산·가금류 등 축산 생산시스템이 세계 단백질 공급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으며, 큰 폭의 구조 전환이 진행 중이라고 분석
 - 생산방식별로는 혼합 곡물-축산과 가금류가 각각 세계 축산 단백질 공급의 약 30%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크고, 돼지 생산 19%, 방목 12%, 사양장(feedlot) 3% 순
 - 반추동물은 세계 육류 생산량의 26%, 돼지·가금 등 단위동물은 74%, 소는 세계 우유 생산량의 81%를 담당
 - 육류·유제품·달걀 등 육상동물성식품(TASF)의 국제교역 비중은 낮아(육류 15%, 유제품 12%, 달걀 3%) 대부분 국가·지역 내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축산업은 세계 농업 국내총생산(GDP)의 40%(약 1.8조달러)를 차지
 - 사료·식량 경합 완화를 위해 농산업 부산물, 초지·한계지 활용 확대 등으로 생산방식이 전환되는 추세이며, 축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12%를 차지한다고 평가
- ❖ 국제 교역 비중이 낮다는 진단은 국내 축산물 수입이 국제가 변동보다 국내 생산기반에 더 좌우됨을 뜻하는 만큼, 사육 마릿수 관리 등 국내 수급대책의 실효성 점검 필요

국내 농업·농정 동향

● 경쟁과 성과관리로 도매시장 경쟁력 높인다...개정 농안법 시행규칙 시행 | '26-9-22 농림축산식품부

- 농식품부는 농안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해 도매시장 경쟁 촉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22일 발표, 처분에 대한 의견 청취·이의신청 등 당사자 소명 절차도 함께 마련해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중점
 - 정가·수익매매 전담인력 운용기준을 신설(시행규칙 제29조), 도매시장법인 연간 거래규모별로 10만톤 미만 1명·10만톤 이상 20만톤 미만 3명·20만톤 이상 6명 이상으로 3단계 차등 적용하되 법인별 정가·수익매매 거래규모 등을 감안해 최대 1/2 범위에서 완화 가능
 - 영업이익률이 최근 5년 평균 대비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난 도매시장법인·시장도매인에 위탁수수료를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기준·절차(제39조의2)를 신설, 발동 요건 등 구체적 기준은 별도 고시로 마련 예정
 - 평가결과 이의신청 절차(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, 제52조의2)를 신설하고, 지정취소 사유인 '부진평가'를 '평가 하위 10% 이하'로 구체화(제52조의3)
- ❖ 수수료율 조정 권고와 지정취소 기준 구체화로 도매시장법인의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, 출하자 수취가격에 미치는 영향 지속 점검 필요